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소식지

Seoul Business Letter

SNU BUSINESS SCHOOL

발행인 **남익현** 편집인 **오정석** 2015년 9월 〈제145호〉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 TEL 02-880-6900

2015학년도 신입생 가족 초청행사

서울대학교의 새 가족으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승, 동료, 선배, 후배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여러분의 미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5월 30일 2015년 학부 신입생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2015 신입생 가족초청행사는 경영대학 개교 이래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학교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참석한 가족들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한가족임을 느낀 자리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신입생 학부모를 비롯한 조부모, 형제자매 등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관련 내용 2면에 계속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정규 석사학위 과정)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120명
- 과정특징 2년제 주말 집중과정 (정규석사 학위과정)
- 강의시간 금요일 15:00~19:00 / 토요일 09:00~18:00

원서접수	2015. 9. 14 (월) ~ 10. 19 (월) 17:00 까지
면접 및 구술고사	2015. 11. 19 (목)
합격자 발표	2015. 11. 26 (목)

-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국내외 정규 학사학위 또는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국내외 기관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현직임원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 서울대학교와 EMBA 위탁교육 협약서를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재직 기관으로부터 학비 50% 이상 지원 필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제출 또는 TEPS 특별시험 응시 가능한 자

※ 영어면제 조건 및 자세한 모집요강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참조(http://gsb.snu.ac.kr)

입학문의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행정실 ☎(02)880-1332/2521

INDEX

COVER STORY 1면
- 신입생 가족 초청행사

FOCUS 2면
- 신입생 가족 초청행사

CULTURE & PEOPLE 3면
- 신임교수 인터뷰 - 이정연
- 2015후기 학위 수여식
- 졸업생 대표연설 – 정원희 학생

CULTURE & PEOPLE 4면–5면
- 우리 MBA 에서 결혼했어요
- 2015학년도주간 MBA신입생 입학
- 국경없는 캠퍼스 – 'GNAM플랫폼'
- Doing Business in Korea 성황리에 종료
- EMBA Family day 개최
- 2015 EMBA Internation Field Study

NEWS BRIEFS 6면–7면
- SK경영관 119호, 120호 리모델링
- 2015학년도 1학기 Dean's List 선정
-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0년 연속 최우수 평가
- 교수소식
- 2015년도 신년교례회 및 제14회 서울대AMP 대상 시상식
-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제15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 개최
- AMP 제79기 수료식 개최
- AMP 제80기 입학식 개최
- 경영대학 교수진 릴레이 도서추천

SNU HIGHLIGHT 8면–9면
- 사진으로 본 SNU BIZ TIME

ALUMNI & DONATION NEWS 10면–13면
- 84학번 세미나실 헌정식
- Wall of Honor 명패교체식
- 마음 나누기
  – 김광일동문(학사84, 석사89)
  – 국기호동문(학사79) 가족
  – 이대건동문(학사03)
- 기부자 이름 제2호강의실
  – 원재연동문(학사82)
- 발전기금 소식
- 동창회 골프대회 소식
- MBA 총동창회 2대 회장 선출
- 2015 제 3차 MBA 동문 오찬 특강
- 졸업기념 인터뷰
  – 이병서동문(학사56, 석사 66)

SBL COLUMN 14면–15면

OUR BENEFACTORS 16면

세대 – 학교 – 가정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소

2015 신입생 가족 초청행사 개최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2015 신입생 가족 초청행사"가 지난 5월 30일 토요일 경영대학 수펙스홀에서 진행됐다. 재학생, 학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약 260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올해 최초 개최한 행사로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2015 신입생의 서울대학교 입학을 환영하고, 경영대학이 나아갈 비전과 발전방향을 학부모 및 재학생 가족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경영대생의 공부하는 공간, 생활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환영

행사가 시작되기 앞서,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경영대 입학을 기념하고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가졌다. 식전 가족사진 촬영은 행사 후 액자에 넣어 기념품으로 나누어 드렸다.

이날 행사는 참석해주신 학부모와 경영대 가족에게 경영대 학부생의 생활을 재치있게 다룬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남익현 경영대학장은 인사말에서 "20년간 반듯하고 곱게 키운 딸, 아들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진학시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고 말했다

약속

박희준 학생부학장의 학교소개가 진행됐다. 경영대학의 비전에 따라 학생들이 창조적이며, 도전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들과 실제적으로 졸업생들의 현황이 소개됐다. 이후 곽성원(경영'11) 학생회장의 캠퍼스 라이프 소개가 있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학교 생활 등을 학생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에는 학부모이 직접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 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해외 수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다.

이후 수펙스홀 및 경영대학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가족끼리 오찬을 즐겼으며, 오찬 후에는 경영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들을 직접 둘러볼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를 마련했다. 스탬프 투어는 가족단위로 경영대학생들이 자주 활용하는 공간인 동원관 학교식당, 경영학도서관, 전산실, 세미나실, T 라운지, 동아리방, 노트북 사용공간 등을 랜드마크로 지정하여 그곳을 모두 함께 구경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7곳을 모두 돌아 스탬프를 수집한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축하

점심식사 후에는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는 공연의 장이 마련됐다. 첫 순서 클래식 기타 동아리 "뮤즈"는 잔잔한 선율로 축하공연의 문을 열었다. 이후 경영대 교수진이 결성한 밴드인 'G.A.ROCK(가락)'의 공연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학부모들은 교수들의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열정에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가락 공연이 끝나고 경영대 학생 밴드 동아리 발악(B.A.ROCK)이 뒤를 이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2014년 머니투데이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홍범서'가 자작곡 '관악산 클라이머'를 들려주었다. 학부모, 학생, 교수가 함께 어울릴수 있는 축하공연이 막을 내렸다. 공연 후 사전에 신청한 서울대학교 명소로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관정도서관, 규장각, 박물관, 미술관 중 최대 2곳을 선택했고, 네팀으로 나누어서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경영대학 홍보대사 학생들의 안내로 서울대학교 랜드마크들을 소개했으며 관정도서관, 규장각,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각각 학예사와 전문 안내자가 심도있는 설명을 해주었다.

남익현 경영대학장은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임을 알기에 교육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며 "학생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2015 경영대 학부 신입생 가족초청행사는 신입생가족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가족들의 궁금증과 염려 거리들을 해소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은 경영대 재학생으로서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었고, 재학생 가족들은 경영대학과 학내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수 있는 장이었다.

향후 경영대학은 매년 학부 신입생 가족 초청행사를 진행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경영대학 가족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신임 교수 인터뷰

이정연 부교수

전공분야 : 인사조직

학력

Ph.D.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r, Kelly School of Busines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2005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Organizational Change), Kelly School of Busines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1998

B.B.A Yonsei University 1995

경력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The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KS, 2011~2015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The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KS, 2005~2011

Q. The University of Kansas 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는데요. 오랫동안 해외에서 강의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셔서 첫 강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Th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Business 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서울대 경영대 학생들을 강의하시고 난 후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아니오, 특별히 많은 차이를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차이라면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주로 눈동자와 머리색이 너무도 다양했으나 이곳에 오니 모두 검은색이군요 (웃음). 첫 수업을 마치고 반짝반짝한 서울대생의 눈빛과 총명함은 어디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이 영어강의였기에 학생들이 영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나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용기있게 질문도 하고 반응도 해주어 무척 자랑스럽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또 격려도 해주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경영대 학생들과 같이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소감 및 목표

서울대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있던 미국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참여하는 해외 학회에서도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신 교수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저 역시도 이런 우수한 교수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우수한 실력과 더불어 그분들의 열린 마음과 따듯함에 끌려 제가 서울대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수님들을 본받아, 더불어 서울대학교 경영대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곳 공동체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Q. 주요 연구분야 및 최근 연구주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로 회사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회사의 인사관리제도 선택, 그리고 경영자와 종업원의 경력과 관련된 선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 개인이나 또는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 조직행동론적 또는 사회경제학적인 접근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간 저는 회사의 내부고용시장의 활용이 종업원의 협동과 개별근무협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련된 연구를 해왔습니다. 내부고용시장이란 밖에서 인력을 뽑기보다는 주로 회사 내부에서 사람들을 뽑아 오랜기간에 걸쳐 회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하여 안에서의 승진을 바탕으로 보상을 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접근법인데요. 문제는 세계화 및 여러가지 역동적인 기업환경 변화로 인하여 이 인적자원관리방식이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내부고용시장의 정도를 가진 회사들을 비교분석한 바, 저는 내부고용시장을 도용 또는 유지한 회사들에서 종업원이 태만을 지연하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만은 종업원이 회사와 관련된 지식 기술의 습득으로 인하여 독점적인 지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태만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내부고용시장의 강도가 높은 회사에서 이러한 태만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고요. 따라서 제 연구는 내부고용시장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더라도 종업원의 협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고용시장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그들의 개별근무협약을 줄이는 현상도 발견하였는데요. 이는 개별근무협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내부고용시장이 개별근무협약에서 올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으나 내부고용시장의 인식으로 종업원이 개별근무협약을 줄이는 정도는 회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상대적으로 덜 보유한 종업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회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한 직원에게는 내부고용시장이 별로 그들의 개별협약정도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연구들은 제 생각에 그치지 않고 올해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와 Organization Science에 각각 실렸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리자의 이직와 보상 그리고 최고인사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서울대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인생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조언이나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제가 조언이나 격려를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활 때의 제 경험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때 학교내 언론기관에서 수습기자부터 시작해서 편집장까지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동료들을 만났고 롤모델이 되었던 다양한 선배들을 만났으며, 힘이 되는 친구들을 얻었으며, 그리고 후배들과 더불어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목표가 불분명했던 제게는 그 경험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미래에 대해 두려우신 분은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야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과 관련된 조직에 들어가서 힘이 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201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서울대학교가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878명, 석사 969명, 박사 524명 등 총 2,371명의 졸업생에게 학위증을 수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정원희 (경영 09)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다. 정원희 학생은 이날 연설에서 '저의 삶을 지탱한 힘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이었다고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함을 증명해보이는 삶을 살아가자'고 연설했다.

이날 경영대학에서는 학부 44명, 석사 26명 (EMBA 5명), 박사 7명이 경영학 학위를 받았고, 후기 최우수 졸업생 대표로 경영대학 나인성 (학사 11)학생이 수상했다. 미래 한국의 앞날을 책임질 최고의 인재들의 힘찬 첫발을 기대해 본다.

뇌성마비 이겨낸 정원희 씨, 서울대 졸업식 대표 연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함을 증명하자"

세상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내 스스로 일을 해내는 게 중요

"저의 삶을 지탱한 힘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은 정원희 씨(25 · 사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자"며 이렇게 말했다.

정씨는 이날 휠체어를 탄 채로 연단에 올랐다. 서울대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한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11개월 만에 뇌성마비 2급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학창시절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 ·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009년 서울대 경영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의 봉사활동, 서울시립아동병원 보조교사에 이어 장애 문화예술 단체 '짓'을 창립해 연극배우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처음 대학에 입학해서는 너무나 거대한 세상에 맞닥뜨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기도 했다"며 "이후 받기만 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시피 저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고, 세상은 저 같은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한다"며 "하지만 신체의 특수성 때문에 조금은 다른 눈높이에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삶은 더욱 풍성해졌다"고 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삼포세대' '달관세대' '헬조선' 등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어두운) 뉴스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모교에서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며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다잡자"고 당부했다.

졸업식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정씨는 연설에서 '가능성'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며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선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장애를 너무 큰 장벽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장애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 들이되,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다보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4월 한국투자공사(KIC)에 입사해 현재 주식운용실에서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향후 해외투자 전문가로 성장해 많은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8월 29일자

오형주 기자

MBA 에서 우리 결혼 했어요

We got married

2016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 SNU MBA, Executive MBA를 통틀어 1000여명의 동문이 배출되었고, '서울대 MBA'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서울대 MBA 10주년을 앞둔 2015년 가을, 서울대 MBA를 통해 정말 '가족'을 이룬 동문들의 소식을 모았다. 지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학우로 만나, 인생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MBA의 동문들의 캠퍼스 러브스토리 !

김태현 (GMBA 7기) & 김현덕 (GMBA 7기)

MBA 첫 수업, 저희는 U자형 책상에 가장자리에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하!) 아내는 누구보다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귀여워 보이는 외모지만,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돋보였으며, 때로는 보호해 주고 싶은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반전 매력의 독특한 친구였죠. 그렇게 지켜보면서 관심과 호감은 짝사랑이 되고, 그 후 6개월을 적극적으로 쫓아 다녔습니다. 2013년 2월 17일은 저희 커플의 첫 하루가 시작된 날입니다. 첫 데이트는 등교길 지하철이었어요. 2호선 삼성역에서 만나 지하철로 함께 등교한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수업과 과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학교에 있는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데이트를 즐겼지요.
이 지면을 통해 GMBA 동기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제주도에서 올렸는데 몇몇 동기들은 휴가까지 내고 참석해 주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연을 맺는 소중한 날, 함께해준 동기들은 그 날의 아주 커다란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득, MBA 후배들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로맨스를 즐겨라!" MBA 진학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테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연애도 반드시 하라는 조언을 했었어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박진욱 (GMBA 5기) & 박찬주 (GMBA 5기)

저희 같은 스터디그룹에서 공부하다가 친해져서 학기가 시작한지 한 달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둘이서 길게 대화 나누며 친해진 것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오대산 등산할 때였어요. 사실 서로의 첫 인상은 좋지 않았었는데 (사귄 후 알게 된 사실) 그 이후로 많이 친해졌지요. 저희 GMBA 수업 들으며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 공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이 들고 결혼한 케이스라 거창한 러브스토리는 없지만, LG경영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숙제하고 발표 준비하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각 납니다. 저희 학기 중에 결혼해서 꽤 많은 동기들이 저희 결혼식에 와주었고, 당시 주임교수님이신 채준 교수님도 와주셨어요.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MBA에 들어가서 서로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언제든지 본인 일을 열심히 하고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꿈을 같이 이룰 짝이 나타날 것입니다. 후배님들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유성은 (SMBA 7기) & 조다현 (SMBA 7기)

유성은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지금은 아내가 된 조다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 추파를 던져도 눈치를 못 챈 것인지, 제가 별로였던건지 반응이 없더군요. 저희 기수에는 소위 '분당파'라는 분당 지역 카풀 모임이 있었는데, 분당에 살지도 않는 저는 열심히 분당파를 쫓아다니며 아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형님 한 분이 지금의 아내에게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백을 했죠. 연애 4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상견례까지.. 졸업 전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조다현 눈치가 너무 없던 저는 유성은 군이 다른 동기를 마음에 두고, 일부러 그 친구와 친한 저와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꽤나 당황했습니다. 사귀기 시작하면서도 왠지 쑥스러운 마음에 동기들 몰래 만나자고 쉬쉬했는데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에 한 동기에게 들켰고, 또 사실 동기들 대부분이 이미 눈치채고 있어서 나중에 커플임을 알렸을 때 제가 오히려 더 놀랐답니다.

김성식 (SMBA 5기) & 최혜인 (SMBA 5기)

홍콩의 연인! '파리의 연인'하면 왠지 재벌2세와 미녀의 달콤한 로맨스가 떠오르지만, '홍콩의 연인'이라고 하면 중국집 싸구려 기름 냄새와 왕만두를 빚고 있는 왕서방이 생각나시죠. 이 제목은 아주 간단하고 대충 지은 것 같지만 나름 긴 고민 끝에 얻은 제목입니다. MBA 이후의 제 삶을 이 제목보다 더 간단하고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홍콩+연인=제 서울대 MBA이후의 삶인 거죠. 2012년 3월 18일, 저희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와이프가 된 사람은 제 MBA 동기(SMBA 5기)였고, 주례는 박철순 교수님, 사회와 축가 역시 MBA 동기들이 맡아 주었죠. 학부 다닐 때도 못해본 낭만적인 캠퍼스 커플 시절을 거쳐, 드디어 암울한 총각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죠. 6년간 다닌 LG화학에 호기롭게 사직서를 내면서 남아계신 분들에게 던진 공약, "결혼할 짝 찾으러 대학원 갑니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듀오 근처에서 서성이는 분들은 '솔로 탈출'이라는 대학원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저에게는 대학원에서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해외 취업'이었죠. 서울대 MBA에 진학하자마자 저는 '해외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정보의 통로를 다원화 하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글로벌한 배경의 동기들에게도 물어보고, 해외 잡사이트를 기웃거리기도 하였죠. 물론 주변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들이 없진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의 와이프조차 '이 오빠는 헛바람이 단단히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였다니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면 도전이랄 수 있었죠. 결국 졸업 시즌에 맞추어, 프랑스계 화학 무역회사인 지금의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런던 지사 생활 반년을 지나 지금은 홍콩 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런던과 홍콩에서의 신혼 생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고, 와이프와 저는 지금도 MBA 동기로서의 애정과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SNU 데이트 핫 플레이스

유성은 (SMBA 7기) & 조다현 (SMBA 7기)

SNU MBA 덕분에 저희는 결혼 전 1년 반 동안 무려 3번의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하!) 스터디투어로 싱가폴, GNAM Week로 중국, 여름방학 중견기업 프로젝트로 베트남까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 드리고 다녀올 수 있었어요. 동기들과 함께하는 일정 사이 둘만의 짧은 시간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 까지 학교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많은 과제와 시험을 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

김태현 (GMBA 7기) & 김현덕 (GMBA 7기)

우리의 추억이 담긴 캠퍼스 데이트 코스를 묻는다면 주저 없이 LG경영관 4층 세미나실을 꼽겠습니다! 과제와 발표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아끼느라 세미나실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데이트를 즐겼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곳도 세미나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약 2년간의 '모범적인(?)'연애 끝에 올해 6월 13일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며 등교하던 일, 세미나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던 시간들을 추억하면 미소가 떠오릅니다. 평생 사랑할 사람, 내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해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lobal MBA는 나에게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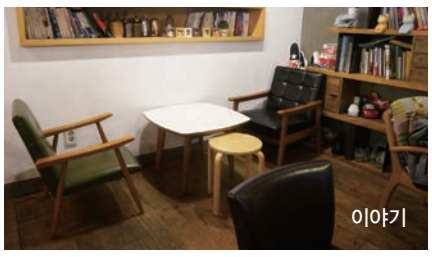
박진욱 (GMBA 5기) & 박찬주 (GMBA 5기)

LG경영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숙제하고 발표 준비하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각 납니다. 저희 둘 다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내의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경기를 자주 했습니다.

걷고싶은 길

LG경영관 4층 세미나실

59동 도서관


이야기

이야기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MBA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BA 소식

2015학년도 주간 MBA 신입생 입학

매해 상반기 Global MBA, SNU MBA 원서 접수

2015학년도 주간MBA(Global MBA, SNU MBA)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8월 11~12일 1박 2일에 거쳐 LG경영관과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남익현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축사와 김상훈 MBA부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행사는 신입생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졌다.
경영전문대학원 주간 MBA는 매해 상반기에 선발하며, 오는 10월경 홈페이지를 통해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공고될 예정이다. 〈MBA입학문의 (02)880-2551〉

2015학년도 주간 MBA 신입생 Class Profile (합격자 기준)

CLASS SIZE

119명

GMBA 47명 / SMBA 72명

DEMOGRAPHICS		BACKGROUND	
평균연령	30.7세	평균경력	4.5년
여학생	53%	해외학부출신	46%
외국인학생	16%	회사지원	24%

서울대 MBA, 'GNAM 플랫폼' 기반으로 국경 없는 캠퍼스 실현

경영전문대학원 MBA재학생들이 Global Network for Advanced Management(약칭 GNAM)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단기 교환프로그램인 GNAM Network Week에 참여했다. 예일대 주관으로 결성되어, 세계 각지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스쿨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한 GNAM은 현재 27개 대학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이 유일하고 그 외 홍콩과학기술대, 싱가포르국립대, 인시아드, 런던정경대학 등 유수의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대학들이 번갈아 한 주씩 진행하는 GNAM Network Week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예일대를 포함해 총 19개 대학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우리 학생들은 이 중 미국, 캐나다, 스페인, 일본, 중국, 홍콩, 터키, 필리핀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30여명이 참여했다.
봄, 가을학기에 각각 개설되는 온라인 과목(Network Course) 역시 GNAM 회원대학의 MBA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Network Course는 SNOCs(Small Network Online Course)를 반영한 형태로서, GNAM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기반하여 전 세계 GNAM 회원대학 교수진이 실시간 강의하고, 각국 MBA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며 그룹프로젝트와 실시간 토론을 진행한다. 본 온라인 과목은 경영전문대학원 선택과목(2학점)으로도 개설되어 2015학년도 2학기 기준 경영전문대학원 MBA학생 10여명이 수강 중이다.

경영전문대학원 GNAM 온라인 교과목 개설 현황
자연자본 : 글로벌 자원시스템의 위험과 기회 (Natural Capital : Risks and Opportunities in Global Resource Systems)
포괄적 비즈니스 모델 (Inclusive Business Model)
독점 규제법 및 국가 간 집행사례분석 (Analysis of Competition Law and Enforcement Across Countries)
국가 간 모바일 뱅킹 기회 (Mobile Banking Opportunities Across Countries)
신상품 개발 (New Product Development)
재난관리 : 인도적 지원 관리 및 개발 (Handling Disruption : Humanitarian Emergenc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Thank you for amazing week in Seoul" - Doing Business in Korea 성황리에 종료

UCLA, 싱가포르경영대학에서 참가한 해외MBA학생들에게 한국 비즈니스 노하우 전수

지난 8월 17일부터 한 주간 진행된 경영전문대학원의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그램 'Doing Business in Korea'(담당교수: 채준)가 우리 MBA재학생과 해외 파트너대학 MBA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당초 본교 MBA 외국인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선택과목이었으나, 해외 파트너 대학 MBA학생들에게도 수강기회를 열어 올해는 UCLA와 싱가포르 경영대학 MBA재학생 30명, 본교 MBA학생 30명으로 약 60여명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본교 교수진 및 전문가의 특강, 기업탐방, 문화체험 및 그룹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고유의 기업지배구조와 산업발전 모델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 법률 시스템, 전통음악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한국의 경제, 경영 이슈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투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분석하며 서울대 MBA학생들과 해외MBA학생들이 혼합팀을 이루어 진행했던 Case Competition은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MBA학생들이 자국 기업 중 하나를 골라 한국으로의 진출 전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은 한 주 동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비즈니스환경 분석, 외국기업/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의 사업성 및 현지화 전략 등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호응은 온라인으로도 이어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일주일간의 일정과 소식들을 실시간 공유하기도 했다.

EMBA 소식

EMBA Family Day 개최

지난 5월 10일(일)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 과정은 Family day를 개최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본 행사는 EMBA 재학생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여 강의실 및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을 관람하고 학생들의 가족들이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EMBA 재학생 및 가족 300여명이 참석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오전 10시에 정일부 총학생회장의 개회 선언과 채준 주임교수의 환영사로 시작 되었다. 이후 개그맨 이동엽과 함께하는 가족 화합 레크레이션과 10대 자녀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및 어린이와 함께 즐기는 마술쇼와 버블쇼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영대학 학부에 재학 중인 신용준 학생의 "공부 잘하는 방법 특강"에는 대부분이 학부모인 재학생들과 자녀들이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특강 후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점심 식사 후 참석자들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각종 시설들을 둘러보며 단체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EMBA 재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주말을 같이 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기들의 가족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유익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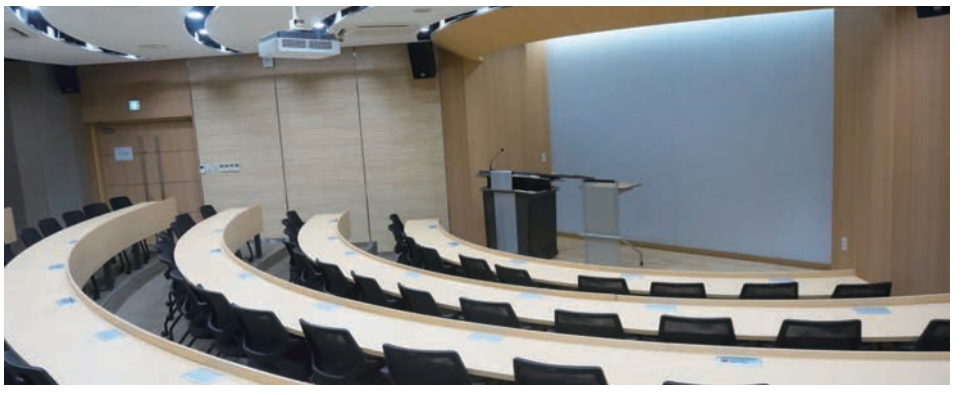
EMBA 하계 International Field Study(IFS) 진행

경영전문대학원 EMBA 재학생 140여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하계 International Field Study를 다녀왔다. International Field Study(IFS)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대학이 제공하는 강의를 듣고 사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층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EMBA 학위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EMBA 학생들은 사전 조사, 현지 비즈니스 스쿨 수업 및 기업방문, 팀별활동, 탐방 후 주제 발표에 이르는 순차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올 여름 IFS는 4개 팀으로 나뉘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4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김상훈 MBA 부학장이 인솔한 스페인팀은 마드리드에 위치한 IE Business School에서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주제로 한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에너지 기업인 Repsol, 상업은행인 BBVA Innovation Center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채준 EMBA 주임교수가 인솔한 미국팀은 Yale대학에서 Behavioral Economics, Customer insights, Competitive strategy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고, GE Capital을 방문하여 세계적인 기업의 최근 구조조정 사례를 배울 수 있었다. 양홍석 부주임 교수가 인솔한 프랑스팀은 파리 HEC대학에서 International Challenges를 주제로 한 강의와 특강을 듣고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Faurecia를 방문하였으며 김정욱 부주임교수가 인솔한 캐나다팀은 벤쿠버에 위치한 UBC에서 Sustainability를 주제로 한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들(South East False Creek Energy Centre 및 Olympic Village)을 방문하였다.
명문 비즈니스 스쿨들이 위치한 세계적인 도시들에서 진행된 2015 IFS에 참여한 서울대 EMBA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세련된 비즈니스 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해외 유수의 비즈니스 스쿨들과 대등한 교류가 가능해진 서울대 EMBA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중국 칭화대 EMBA 방문

중국 최고 명문대이자 전세계 Executive MBA과정 랭킹 최상위권인 중국 칭화대 EMBA 학생 21명이 서울대 EMBA 재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해 서울대 EMBA 수업이 있는 10월 3일(토) 오후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방문 예정이다. 중국 굴지의 기업 대표 또는 고위 임원으로 구성된 칭화대 EMBA 한국방문단은 삼성전자 등 한국대표기업 방문과 함께 한국 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대 경영대학만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날 EMBA 재학생들이 주최하는 환영만찬과 교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SK경영관 119호, 120호 리모델링



SK경영관의 학부 전공 강의실 두 곳이 새단장을 했다. 학부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SK경영관의 기존 강의실들은 그동안 공간부족과 낙후된 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의실 리모델링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되어 두 달에 걸쳐 진행됐으며 119호, 120호는 각각 80석 규모의 토론이 가능한 학부 강의실로 새단장을 했다.

2015학년도 1학기 Dean's List 선정

경영대학은 2011년부터 Dean's List 제도를 마련하여 매학기 성적 우수자들을 시상하고 있다. Dean's List로 경영학과 전공과목을 충실히 이행하고, 해당 학기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보인 학생들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있다.

2014년 1학기부터는 선정요건을 강화했음에도 이번 학기 총 29명이 선정됐다. 이번 딘스리스트에 선정된 학생은 2015학년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전공과목 5개(15학점) 이상 수강, 총 평점이 4.0이 넘는 학생들로 선발됐다. 선정된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SK경영관 1층 로비에 사진이 게시되며, 자택으로 인증서가 발송된다. 9월 중 경영대 학장과의 오찬을 통해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10년 연속 최우수 평가

서울대학교 연구소평가에서 경영연구소가 10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는 학칙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총 73개의 연구소(원)을 평가하고 있다. 연구소(원)의 운영실적을 진단, 평가하여 연구소 운영에 대한 발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소 운영, 연구여건, 연구활동(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사회봉사), 발전계획 등에 걸쳐 종합평가를 진행 하고 있다. 경영연구소는 연구실적과 사회봉사활동, 차기 3개년 활동 계획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많은 연구업적과 활발한 대외적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대형 연구소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 송재용 경영연구소장은 "경영연구소의 글로벌화 추진 등으로 국제적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업계와 학계를 연계하는 다양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교수 소식

고봉찬 교수 경영학회에서 수상하는 '제3회 SERI 중견경영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성수 교수 (외 Oh, In-Sue, Van Iddekinge and Chad H.)의 "Taking it to another level: Do personality-based human capital resources matter to firm performance?" 논문이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김수욱 교수 (외 Wang Yiming and Ning Ye)의 "A Discussion on New Supply Chain Finance Model based on Wholesale Market" 논문이 FINANCIAL THEORY & PRACTICE에 게재 확정되었다.

김수욱 교수 (외 Ram Narasimhan)의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논문이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에 게재 확정되었다.

김우진 교수 (외 Hyo-Jeong Lee)의 "Debt and Taxes: Evidence from Foreign versus Domestic Subsidiaries in an Emerging Market" 논문이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 게재되었다.

김우진 교수 (외 Min-Su Kim, and Dong Wook Lee)의 "Stock return commonality within business groups: Fundamentals or sentiment?" 논문이 Pacific-Basin Finance Journal에 게재 확정되었다.

김우진 교수 (외 Soo Jin Kim, and Dong Ryung Yang)의 "Infant firms in emerging market: An analysis of stand-alones vs subsidiaries" 논문이 Emerging Markets Review에 게재 확정되었다.

김우진 교수 (외 Jaiho Chung and Hyejin Cho)의 "Is Cross-Listing a Commitment Mechanism?: The Choice of Destinations and Family Ownership" 논문이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에 게재되었다.

김정욱 교수 (외 Hyunbae Chun and Jason Lee)의 "How does information technology improve aggregate productivity? A new channel of productivity dispersion and reallocation" 논문이 Research Policy에 게재되었다.

김정욱 교수 (외 Martin Dierker, Randall Morck and Jason Lee)의 "Investors' Interacting Demand and Supply Curves for Common Stocks" 논문이 Review of Finance에 게재 확정되었다.

박기완 교수와 이경미 교수 (외 Hakkyun Kim)의 "Balancing Out the Metacognitive Feeling of Social Risk through Playing Safe: The Effect of Social Networking on Subsequent Risk-Related Judgments" 논문이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에 게재 확정되었다.

박기완 교수 (외 Seojin Stacey Lee)의 "The Role of Beneficiaries' Group Identity in Determining Successful Appeal Strategies for Charitable Giving" 논문이 Psychology & Marketing에 게재 확정되었다.

박원우 교수 (외 Choelyoung kim)의 "Emotionally exhausted employees' commitment: Tests of three-way interaction and moderation effects"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에 게재 확정되었다.

박원우 교수 (외 Jee Young Seong, Amy L. Kristof-Brown, Doo-Seung Hong and Yuhyung Shin)의 "Person-Group Fit: Diversity Antecedents, Proximal Outcomes, and Performance at the Group Level" 논문이 Journal of Management에 게재되었다.

박원우 교수 (외 AMY L. KRISTOF-BROWN, JEE YOUNG SEONG, DAVID S. DEGEEST, DOO-SEUNG HONG)의 "Collective fit perceptions: A multilevel investigation of person-group fit with individual-level and team-level outcomes" 논문이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에 게재되었다.

박철순 교수 (외 Jin, Kyuho)의 "Separation of Cash Flow and Voting Rights and Firm Performance in Large Family Business Groups in Korea."논문이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에 게재 확정되었다.

백복현 교수 (외 Young Jun Kim, Jungbae Kim and Su Jeong Lee)의 "Usefulness of earnings in credit markets: Korean evidence" 논문이 Pacific-Basin Finance Journal에 게재되었다.

백복현 교수 (외 Kwanghee Cho, Wooseok Choi and Jun-Koo Kang)의 "The Role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Cross-Border Mergers: A Perspective from Bidder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논문이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에 게재되었다.

백복현 교수 (외 K. Kim, R. Morton, and Y. Roh)의 "Analysts' Pre-tax Income Forecasts and the Tax Expense Anomaly" 논문이 Review of Accounting Studies에 게재 확정되었다.

송재용 교수 (외 Woojin Yoon and Diane Y. lee)의 "Alliance network size, partner diversity, and knowledge creation in small biotech firms" 논문이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에 게재 확정되었다.

송재용 교수 (외 Woojin Yoon and Sang Ji Kim)의 "Top management team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reativity" 논문이 Review of Managerial Science에 게재 확정되었다.

송재용 교수와 이제호 교수 (외 Jae-Suk Yang)의 "Network structure effects on incumbency advantage" 논문이 Strategic Management Journal에 게재 확정되었다.

송재용 교수와 이경묵 교수 (외 Tarun Khanna)의 "Dynamic Capabilities at Samsung: Optimizing Internal Co-opetition" 논문이 California Management Review에 게재 확정되었다.

오정석 교수 (외 Byungwan Koh and Srinivasan Raghunathan)의 "Value appropriation between the platform provider and app developers in mobile platform mediated networks" 논문이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에 게재되었다.

오정석 교수 (외 Byoungsoo Kim)의 "The difference of determinants of acceptance and continuance of mobile data service: A value perspective" 논문이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에 게재 확정되었다.

윤석화 교수 (외 Kim, Seckyoung Loretta)의 "The effect of coworker knowledge sharing on performance and its boundary conditions: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논문이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이관휘 교수 (외 Shu-Feng Wang)의 "Do foreign short-sellers predict stock returns? Evidence from daily short-selling in Korean stock market" 논문이 Pacific-Basin Finance Journal에 게재되었다.

이제호 교수 (외 Deokjae Lee, Jae-Young Kim and B. Kahng)의 "Forest-fire model as a supercritical dynamic model in financial systems" 논문이 Physical Review E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는 한국조사연구학회로부터 '한국갤럽학술논문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Yuhyung Shin, Sun Young Sung and Min Soo Kim)의 "Top Management Ethical Leadership and Firm Performance: Mediating Role of Ethical and Procedural Justice Climate" 논문이 Journal Business Ethics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Yuhyung Shin and Jing Du)의 "Multi-level Longitudinal Dynamics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Interpersonal Helping in Organizational Teams" 논문이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에 게재되었다.

최진남 교수 (외 Yoon, Hye Jung and Sung, Sun Young)의 "Mechanisms Underlying Creative Performance: Employee Perceptions of Intrinsic and Extrinsic Rewards for Creativity" 의 논문이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에 게재되었다.

AMP소식

2015년도 신년교례회 및 제14회 서울대AMP대상 시상식

2015년 신년교례회 및 제14회 서울대AMP대상 시상식이 2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렸다. 서울대AMP대상은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출신자 가운데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경영성과를 보인 전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제14회 AMP대상 수상자로 임도수 보성파워텍 회장(20기), 이경수 코스맥스(주) 회장(28기), 최영수 크레텍책임 회장(46기),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68기) 등 4명이 공동 수상했다.
이날 교례회 및 시상식엔 손경식 명예회장과 김종섭 동창회장, 이병재 수석부회장, 조정남 AMP대상 심사위원장, 손병두 부회장, 김태환 부회장(새누리당 의원) 등 총동창회 임원과 남익현 학장을 비롯한 경영대학 교수진, 77기와 78기 신입회원 등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14회 AMP대상수상을 축하했다.

AMP 제 79기 수료식 개최

AMP 제 79기의 수료식이 지난 8월 19일 (수) 오후 6시 SK경영관 수펙스홀(SUPEX HALL)에서 진행됐다. AMP 79기는 2015년 3월 6일부터 8월 19일까지 6개월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캠퍼스에서 국내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최신 경영이슈와 사례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유근배 기획부총장, 남익현 경영대학장, 김종섭 AMP 총동창회 회장, 경영대학 교수진 등 많은 내 • 외빈들이 AMP 79기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한편, 제 79기 수료생들은 경영대학에 수료를 기념하여 5,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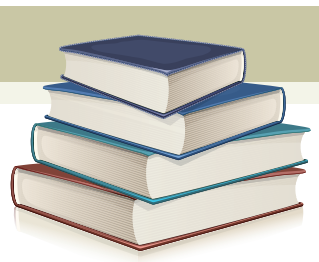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제15회 '자랑스러운 교수상'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총동창회에서는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제15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4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진행했다.
제 15회 자랑스러운 교수상은 김재일 교수가 수상했으며, 이날 '저성장기 한국기업의 경영: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재일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AMP 제 80기 입학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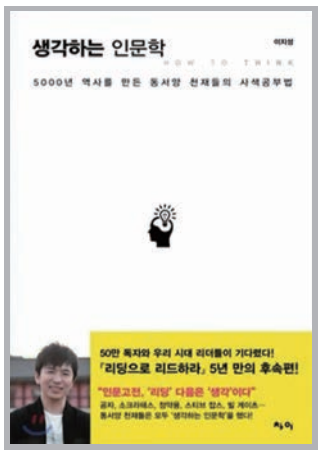
AMP 제 80기의 입학식은 지난 9월 4일 (금) 오후 2시 SK경영관 수펙스홀에서 진행됐다. 남익현 학장은 축사에서 "최고경영자과정에 입학하는 분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생의 신분을 택한 AMP 80기 교육생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겸손함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경영대학은 여러분의 이런 열의와 노력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및 운영에서 최고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입학한 AMP 제 80기 61명은 2015년 9월 4일(금)부터 2016년 2월 22일(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캠퍼스에서 국내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교육받게 되며, 10월 말 AMP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대학 교수진 릴레이 도서 추천 오정석 교수



생각하는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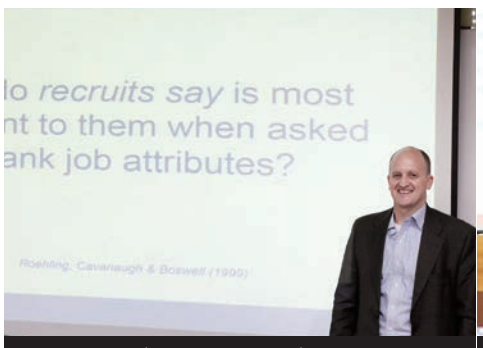
이지성 지음



역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모습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때 어떤 선조들은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다른 선조들은 중차대한 실수를 범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역사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를 더해가는 모양새다.
반면에 과거의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는 일은 어렵다. 먼저 수많은 역사적 사건 중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 수 천년 인류역사는 그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대부분 사건들은 기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도 하다. 많은 경우에는 기록자의 주관과 시대정신에 의해 변질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 지식을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 승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문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quick start를 하게 해주는 guide book 역할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인문학 지식이 구체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 동서양의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좋은 학습습관을 전수하고자 한다. 이순신 장군의 오자병법 활용사례와 일제시절 일본의 식민교육 사례로 책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생각'이 기반이 된 지식, 그리고 현실을 바꾸려는 '행동'을 인문학 지식과 현실간의 간극을 연결하는 대표적 덕목으로 제시한다.
구제척인 '생각하는 공부법'들도 매우 와 닿는다. 요약하자면 생각의 목적을 가지고 (입지), 겸손한 자세로 (거경궁리),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드는 (격물치지) 자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의 현실에서 자칫 숲을 보지 못하고 입시, 학점, 취업, 자격증 등 단기성과에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현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다. 이 책은 역사적인 사례를 활용해 인문학 공부의 정도를 제시하려 하지만 언급한 대로 역사적 사건들의 정확성과 평가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책에 제시된 사례 및 주제들을 받아들일 때는 이러한 주관성, 또는 편협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비판적인 시각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 자체로 저자가 강조하는 '사색'이 기반이 된 학습이라 할 수 있겠다.
경영대학 학생들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뛰어난 학업능력을 지닌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다. 이런 경영대학 학생들이 치열한 현실에 매몰되어 단기적인 성취만을 목표로 학창생활을 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지내는 경영대 학생들이 보다 많은 사회적, 국가적 성취를 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보완적인 역할을 이 책에서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본 SNU BIZ TIME

◀ **2015학년도 입학식**
2015.3.2.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 경영대학에는 학부 149명, 대학원 127명이 입학했다.



Ben Dunford(Purdue University)
– Compensation

Param Vir Singh(Carnegie Mellon)
– Business Intelligence

Florian Ederer(Yale School of Management)
– Case Studies in Finance

▲ **2015 MBA 3학기 외국인 겸임교수 16과목 개설**
2015. 3.~6. 예일대학교, 카네기멜론, 듀크, 프린스턴 대학교 등의 해외 명문 경영대학(원) 교수진을 초빙하여 MBA 3학기 선택 과목을 개설 했다.

▲ **벤처경영기**
2015. 5. 29. 자문위원단 • 멘토
오른쪽 세 번째) 등 서울대 출
서울대 엔지니어하우
지

3 March

5 May

2015

4 April

동문경영포럼 토요집중과정 11기 ▶
2015. 3. 21~ 2015. 6. 13 경영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한 제 11기 동문 경영포럼이 수펙스홀에서 열렸다.

2015
각국 지

▲ **성적우수수여식**
2015. 4. 28 2014학년도 성적 우수 수여자 33명의 성적우수 수여식이 시행됐다.

▲ **GNAM Dean's Meeting**
2015.4.22~24 일본 히토쓰바스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제7회 GNAM Dean's meeting에 경영대 학장단이 참석하였다.

◀ **명예교수 스승의 날 오찬**
2015. 5. 14. 스승의 날을 맞아 명예교수를 위한 오찬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성기, 김식현, 남상오, 신유근, 윤계섭, 윤석철, 임종원, 최종태, 한희영 등 총 9명의 명예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후배교수들이 함께 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5월 경영대학 봄 축제**
2015.5.21. 경영대학 봄축제가 경영대학 앞뜰에서 열렸다. 학부생들의 재기발랄한 모습과 싱그러움을 느끼는 기회였다.

▲ **업가센터 자문위원단 및 멘토단 출범식**
단 출범식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앞줄 신 벤처기업 창업자 30여명이 지난 29일 우스에서 열린 '2015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문위원단 • 멘토단 출범식'에 참석했다.

▲ **드림멘토링 수료식**
2015. 5. 30. 드림멘토링 수료식이 진행됐다.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한 드림멘토링 제 5기는 시니어멘토 6명, 학부멘토 17명, 청소년 멘티 30명 등 총 53명이 참석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EMBA 하계 International Field Study(IFS)**
2015. 7. 4 ~ 7. 12.

▲ **2015 경영대학 글로벌 사회공헌단 GCS**
2015. 8. 9~22. 중국 시안으로 7기 하계 활동을 다녀왔다. 영어도서관 설립,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벤처사업팀의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는 소셜벤처팀도 만들어져 내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8 *August*

6 *June*

▲ **2015 제 7차 FMA 아시아 학술대회**
5. 6. 23~25.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주관으로 세계 재무 금융분야 학자들이 참석하여 약 70여편의 우수 학술 논문 발표가 있었다.

7 *July*

◀ **2015 AMP 총동창회 182회 조찬 강연회**
2015. 7. 9. 오전 7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의 '한국경제의 현황과 하반기 전망'이란 주제로 조찬강연회가 열렸다.

◀ **2015 서울대학교 창업경진대회 (SNUVC)**
2015. 7. 29. 서울대학교 주최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에서 열린 창업경진대회는 예선 심사에 총 60여팀이 지원하여, 선발된 8개의 팀이 현장 발표로 1등을 가렸으며, 본 대회를 위해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상금을 후원해 주었다.

발전기금 소식

84학번 세미나실 헌정식

경영학과 84학번 세미나실 헌정식이 지난 3월 27일 LG 경영관 403D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경영학과 84학번은 입학 30주년 기념으로 지난 2014년부터 모금을 진행했다. 84장학기금 및 추가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총 1억 3천만원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였고, 이에 이번 84학번 세미나실 헌정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84학번 동창회는 "재정적 지원으로서의 장학금이 아니라 30년을 앞서 살아낸 선배들의 경험과 격려를 후배에게 주는 매개체로서의 84장학금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4장학기금'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수혜대상을 경영학과 복수 전공생까지도 확대하고 있다.

Wall of Honor 명패교체식 및 S-Honors Club 신규 선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1975년 경영대학 설립 이래로 1천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의 뜻을 높이 기리고, 후학에 모범을 보여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정립을 위해 경영대학 SK경영관 1층 로비에 Wall of Honor(기부자 기념벽)을 설치하고 매 학기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 상반기 S-Honors Club 신규 선정자는 다음과 같다.

느티나무클럽 : 원재연 (학사82)

소나무클럽 : AMP 77기, AMP78기, EMBA5기

마음 나누기

"Pay It Forward"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 학사84, 석사89)

Q. 지난해 시작한 '84멘토 장학금'은 경영대학 차원에서 의미가 큰 장학금입니다. 많은 동문이 참여해주신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일회성 장학금 지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멘토링까지 해주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84학번 동문들끼리 입학 30주년 기념으로 어떤 일을 해볼까 궁리하다가 나오게 된 장학금입니다. 실제로 덕송장학금을 통해 느낀 것인데,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보다는 인적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인 자산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멘토들이 꾸준히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판단하에 만들게 된 것이죠. 또 장학금은 돈을 낸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지만, 멘토링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기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어 더 의미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장학생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있고, 학생별로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배정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등의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덕송장학금은 대표님께서 후원하고 계신 또다른 장학금인데요. 덕송장학금은 어떻게 시작 된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 89학번인데요. 곽수근 교수님이 서울대에 부임하시고 첫 번째 조교였어요. 당시 저는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사법시험에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사실 회계학 조교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교수님은 경청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제 의사를 존중해주셨습니다. 조교가 끝나고도 형님처럼 저를 항상 챙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죠. 제가 여기까지 자리잡은 것은 곽수근 교수님 덕분이라는 생각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0년 정도 흘렀을 때, 교수님의 성함으로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교수님이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송장학금의 모토는 "Pay it forward"이고요, 그 외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나중에 형편이 됐을 때, 도움받은 것의 두 배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죠.

Q. 대표님께서는 회계사, 변호사, 사모펀드 매니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커리어를 계획하신건지, 또 각각 일들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커리어를 계획한 것은 아니고, 좀 더 능동적인 일과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가지 일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스스로 문제 해결사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적인, 법률적인, 그리고 기업 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통점이 있고, 좀 더 창의적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지요? 대표님 학부 시절에 이것만은 잘한 것 같다, 혹은 이것은 못해서 아쉽다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사회가 치열했던 시절이라 4년 동안 시험거부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죠. 재수강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웃음) 대학시절 잘한 점은 많은 책을 읽은 것인 것 같습니다. 20대의 방황하던 시절 내가 누군지를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지금 돌아가도 못할 것 같지만,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4~5일은 과외를 다녔으니까요. 도서관에서 근로 장학생도 했었고요. 그 당시는 항상 희망사항이 공부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였죠. 뭐 시간이 더 있었다고 공부를 더 잘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웃음).

현재 84장학금 학업지원비도 한 달에 학생들 과외 하나 정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Q. 경영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후배들을 만나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눅들어있어요. 가장 똑똑한 학생 130여명이 모여서 그들과만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배짱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급해진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회계사가 꿈이었고, 회계사 일을 하다 보니 변호사가 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곽수근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직업은 지나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일관되게 남는 것이거든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인 사람이 된다면 명함에 쓰인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남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찾게 되고 반겨주게 되는 것이죠. 저희 84동기들도 학교 다닐 때의 예상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정말 다르거든요. (웃음) 제 선배님께서 항상 해주신 말이 있는데, 서울대 경영대학에 들어온 사람이면 겸손하고 성실하면 무조건 잘된다고요. 믿기지 않겠지만(웃음). 프로페셔널 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이 필요하죠. 멘토링 하면서도 후배들에게 많이 해주는 얘기는 내 앞을 보면 걱정되고 조바심이 나지만, 굴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죠.

Q. 학교에 바라시는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워낙 잘해주셔서요.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복수전공 부전공 등 구분하지말고,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학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그러니까 "삶"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넓게 봐야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사회에 나오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 길러지거든요. 학교에서든 집안에서든 사람 수가 많다 보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것이고, 시야를 넓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마음 나누기

딸들을 부탁해

국기호(아버지, 학사79) 국형주(맏딸, 학사11) 국서경(둘째딸, 학사14)

Q. 세 부녀가 모두 서울대학교 경영대 동문입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이에 대해 주위 시선은 어떠했나요?

국기호 : 동문회의 친구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동문들도 첫째 딸이 입학할 때만 해도 정말 놀라웠는데 둘째까지 들어가니까 할 말이 없이 정말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국형주 : 학교에서도 주변에 자매나 형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재학하는 경우는 봤지만 아버지까지 동문인 경우는 아직 저희 빼고 보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하면 많이 신기해 했습니다.

Q. 따님들이 경영대학 진학을 선택함에 있어 아버지께서 해주신 조언이 있었나요?

국형주 : 진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아버지와의 많은 대화를 한 후 결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계실 만큼 두 분 모두 저희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특정 분야를 강조하기 보다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며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경영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된 정보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영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서경 : 아버님께서 특별히 특정분야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사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중2 때 아버지께서 한 번 주식을 해 보라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국기호 : 둘째딸의 이름은 국립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웃음)

국: 국립
서 : 서울대학교
경 : 경영대학 경영학과

Q. 경영대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기호 : 서울대학교 경영대에서 얻은 것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자부심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동기들과 함께 공유하는 감각입니다. 훌륭한 동기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Q.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영대학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기부해주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연해주신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나요?

국기호 : 자본주의의 큰 모순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즉 가진 사람들이 베풀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고, 현재 학교 이외에도, 탈북단체, 중증장애인단체, 저소득층 등 많은 곳에 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을 싣고 싶습니다.

경영대학에 기부한 장학금은 똑똑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라면 모두 똑똑할 테니까 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두 따님이 경영대학에 진학하였듯이 요즘 경영대학에 여학생 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학창시절과 다른 점이 많을거라 생각되는데요.

국기호 : 학교를 다녔던 79학번에 최초로 여학생이 경영대에 진학하였습니다. 현재 경영대 성비가 7대3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식과 정보의 싸움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우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머지않아 성비가 5대 5까지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만큼 점 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대 동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Q 두 자녀를 모두 서울대학교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경영대학에 진학시키셨습니다. 남다른 교육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어머님 : 큰 애 3살 때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가 인지를 시작 할 때부터 집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같이 공부 하고, 같이 놀고, 같이 느끼며 우리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외워서 대답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해서 대답하는 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자녀와 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의 인성적인 면에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항상 지켜보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기호 : 모든 교육의 기본은 가정이며,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 때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아이의 교육 문제는 가정 내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아버지께서 따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국기호 : 조언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출세나 성공, 화려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의 기준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본인이 행복한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현재 유망직종의 대기업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Q. 모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기호 : 동기들과 대화하다보면, 우리대학 정원문제를 항상 얘기하게 됩니다. 정원을 소수로 뽑아 특출난 사람들을 뽑자는 입장과,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교의 힘을 기르자 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요즘은 정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 135명 수준에서 200명 수준으로 정원을 올리면 우수한 학생의 수준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너무 적은 사람만 혜택을 보아 사회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창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 및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나누기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대건 동문 (학사03)

Q.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얻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영대에서 얻은 것이 정말 많아서 무엇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수업중에 해주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직 미숙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막막하게 느낄 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거쳤던 선배들이 졸업반이 되었을 때 어느덧 성숙하고 멋있게 변해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졸업을 할 때가 되니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고3 생활을 마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을 만나, 그 친구들과 4년간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밤을 새며 놀기도 하면서 제 자신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죠.

제가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이유재 교수님의 광고관리론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수업의 특징이 팀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광고를 제작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팀을 대표해서 발표를 했는데 문득 1학년 때 경영학원론 수업 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 때는 30분이나 발표시간을 초과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겨우 발표를 마쳤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노련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모습을 보니 교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너무나 훌륭한 교수님과 동기, 선후배들과 지내면서 평범했던 제가 특별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이것이 경영대에서 얻게 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교 졸업하신 뒤부터 지속적으로 경영대학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나눔과 기부는 습관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작게라도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통 나눔과 기부는 성공한 뒤 하는 거창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주저하게 되는데요. 모교를 위한 기부를 실천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기부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데요. 인터뷰를 결심한 것은 주변에 나중에 성공해서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서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 제의를 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많이 하겠다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을 언제하느냐가 문제인거죠. 수십업대의 자산가가 되었을 때? 회사의 경영자나 중역이 되었을 때?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어쨌든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자리에 도달했을 때도 본인이 진정 성공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더 큰 성공을 갈망하니까요. 그러면 평생 기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산가치로 볼 때 수십년 후에 내는 수백만원의 돈보다 지금 내는 수십만의 돈의 가치가 더 클 수 있는 거지요.

졸업 직전에 경영대 도서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매월 훌륭한 인물에 대한 전기를 구입하면 구매비용을 지원해주셨어요. 권당 2만5천원 한도로 매월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학생에게는 큰 돈이지요. 대개 위인전기가 두껍고 비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졸업하신 선배님께서 출연하신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더라구요. 얼굴도 모르는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해 주시고 좋은 일에 쓰게 하셨다는 생각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그 선배님처럼 기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기부를 할 만한 여유자금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렇게 살다 보면 평생 기부한 번 못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에서 명절상여금이나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이나마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인들 중에 습관처럼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소액이나마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다보니 이 돈이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천 만원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하다보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누가 아나요. 제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거액의 보너스를 받게 될지요.

Q. 그동안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해주셨습니다. 출연해주신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시나요?

기부 약정서에 보면 기부금 사용용도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 확충 부분에 눈길이 많이 가더라구요. 제가 학창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경영대에 동아리 방이 열악했거든요. 여러 번 이사 다니기도 하고 공간 사용문제로 다른 동아리와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구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다 추억이긴 하지만, 후배들은 조금 더 나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항목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SK에서 기부를 해주셔서 SK 경영관을 멋지게 증축 할 수 있었는데요. 프로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후배님들이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경영대에 입학한 것은 훌륭한 전문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영대학의 설립 취지이기도 하구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경영자가 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Q. 경영대학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문으로서 기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서울대 경영대학이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입학할 당시엔 서울대 법학대학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 위치에 있으면 일거수 일투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수록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남을 더 배려하고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재연 선배님! 감사합니다.

기부자 이름 제 2호 강의실

서울대 경영대학 SK경영관에 '원재연 강의실'이 마련됐다. 지난 9월 14일 2015 GCS(글로벌사회공헌단) 해단식과 함께 '원재연 강의실' 명명식이 진행됐다. 원재연(학사82) 동문은 지난 2009년부터 경영대학 공식 봉식활동 프로그램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글로벌 사회공헌단체' 창립에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기금을 설립했다. 이번 명명식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선배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기념패와 기념영상을 제작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원재연 동문은 이번 명명식에서 "지금 나이는 지식과 경험 모두 중요하다"며 "GCS 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 매번 후배들 볼때마다 자랑스럽고 서울대 동문임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재연 강의실'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개인 기부자의 이름을 딴 두번째 강의실로, 서울대 경영대에 기부자 이름을 딴 강의실이 생긴 것은 지난 2007년 '해강 강의실'이 처음이다.

경영대학 발전기금소식

경영대학 발전기금 출연안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실 (02-880-8931)
경영대학 홈페이지 http://cba.snu.ac.kr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5.02.25~2015.8.31 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내용이다.

1000만원 이상

서울대 EMBA 5기	34,100,000
삼일회계법인	30,000,000
동부문화재단	20,000,000

100만원 이상

트러스톤자산운용(주)	6,625,120
㈜리브로	6,477,971
후원자00026	2,916,655(5,000만원 약정)
김종흔(경영/학사92, 석사96)	2,000,000(1,000만원 약정)
강용학	1,000,000
김광성(경영/학사73)	1,000,000(1,000만원 약정)

10만원 이상

차재연(경영/학사84, 석사89)	700,000(120만원 약정)
김성수(경영/학사83)	600,000(2000만원 약정)
김흥국(경영/학사72, 석사81)	600,000(200만원 약정)
김영희	500,000(100만원 약정)
김기태(경영/학사84, 석사88, 박사92)	350,000(100만원 약정)
노원종(경영/학사96)	350,000(1,200만원 약정)
이상목(경영/학사06)	210,000(36만원약정)
이대건(경영/학사03)	200,000
이홍근(경영/학사70, 석사76)	200,000
유경연(경영/학사95)	120,000(100만원 약정)
김창원(경영/학사97)	100,000(100만원 약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SNU BUSINESS SCHOOL

EMBA총동문회 골프대회 개최

서울대 EMBA 총동문회(회장 김성민)는 지난 5월 16일(토) 화창한 날씨 속에 서울근교 리베라 컨트리클럽에서 총동문회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골프대회는 EMBA 총동문회 발족 이후 처음 개최하는 공식 대회로 서울대 경영대학 남익현 학장을 비롯 하여 채준 EMBA 주임교수와 노상규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골프대회에 참석한 다양한 기수의 EMBA 졸업생 30명은 오랜만에 반가운 동문들과 함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골프대회 우승은 EMBA 동문회 직전 회장이었던 정경원 (EMBA 10, 시스코시스템즈 코리아 대표)가 차지하였으며 우승자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대회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전달되었다.
EMBA 동문회에서는 하반기 행사로 10월 17일 (토) 등산 모임과 11월 8일 (일) 골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2015년도 제5회 서울대 AMP 총동창회 친선 및 나눔 골프대회

AMP동창회가 주최하고 최근 수료한 77기(회장 배호경)와 78기(회장 정명철)가 공동 주관하는 친선과 나눔 행사를 겸한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가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안성베네스트GC에서 열린 친선 및 나눔 골프대회는 총 160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모인 수익금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2,500만원)과 대한적십자사(네팔 구호기금1,000만원)에 기부되었다.

주간MBA 총동창회 골프대회

서울대학교 주간 MBA 총동창회는 지난 5월 23일 (토) 안성 W에서 골프대회를 개최 했다.
주간 MBA 총동창회 소모임 중 하나인 골프모임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룹 중 하나로 이날 대회에는 김도영 총동창회장 및 임원진, MBA 재학생, MBA 교수진 등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매년 2~3회 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골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대 CFO 전략과정 총동창회 한마음 골프/ 산행대회

서울대 CFO 전략과정 총동창회 주관 제 5회 한마음 골프/등산대회가 9월 5일 포천 푸른솔 CC 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50명의 동문이 골프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산행팀을 포함하여 총 170여명의 CFO 동문이 참석하여 단합의 자리를 가졌으며,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CFO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이 나와 기쁨을 함께했다.

MBA 주간과정 총동창회 2대 회장 선출

지난 3월 23일 광화문 생오거스틴에서 MBA 주간과정 (Global MBA, SNU MBA) 총 동창회 정기 총회 및 동창회장 선출이 있었다. 주간과정 총동창회는 2014년에 발족 되었으며, 지난 2014년 제 1기 동창회장으로 홍우승(SMBA 1기) 회장을 선출하여 작년 한해 동안 가족이 함께 하는 홈커밍데이, 동문산행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동문들의 결속력을 다진바 있다. 신임회장은 김도영(GMBA 1기, 삼성증권 이사, M&A 팀장)이 선출되었으며, 올해 선출된 김도영 회장은 "주제별/산업별 소그룹 모임 활성화, 봉사활동 강화"등 재미도 있지만, 의미있고 보람있는 동문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5 제 3차 MBA 동문 오찬 특강

2015년 제 3차 MBA 동문 오찬특강이 지난 8월 26일 오후 12시에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 됐다. 이번 특강에는 서울대학교 남익현 경영대 학장이 "Prisoner' s Dilemma"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MBA 동문을 대상으로 오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동문오찬특강은 MBA동문들의 평생교육제공을 통해 서울대 MBA 동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MBA 선후배, 동기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15년 제 4차 MBA 동문오찬 특강은 11월 13일 오후 12시 파크 하얏트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성수 교수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졸업기념 인터뷰

논문 쓰는 80세 CEO

이병서 (㈜양제아이엔씨 대표, (학사56,석사 66))

2015년 3월 6일 발전기금 협약식(좌)성낙인총장, 이익찬동문, 이병서·김광숙부부

Q. 이병서 회장님께서는 지난 1966년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신 후 석사과정을 모두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사 논문을 마치고 학위를 받으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석사논문을 마치기 위한 재도전 하는 과정에 남다른 계기가 있으신가요? 소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956년 서울대 상대를 입학하고, 학교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계속하여 재학중 군복무를 마치고 1961년 경제학사로 졸업했습니다. 1966~1968년 서울대 경영대학원 제1회 정규과정을 모두 마쳤으나, 대기업 근무를 끝으로 직접 회사 창업하는 (1968년 2월 한국특수화학을 창립) 과정에서 창업에는 성공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논문제출을 못하고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전 서울상대 총동창회(성기학 총동창회장)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계속 경제학과 1명, 경영학과 1명에게 장학금을 전해오고 있던 중, 신종우시(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시작했으면 끝 맺어라)의 정신을 자식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 줘야 겠다고 생각하고 제 석사학위논문 마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자 재도전하게 되었지요.
머리가 흰 백발의 늙은이가 되어서, 비로서 얻은 학위이니 만큼 그것이 비록 학문의 상위경지에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천번 생각 중에 일득 (一 得) 인지라, 제게는 이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Q. 최근 학교의 변화된 모습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2014년 8월 9월학기에 복학하여 지금까지 만 1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수 심리학적 접근 방법과는 다르게 모델적 접근과 경제학적 주제 등을 심리학적 접근과 연결시켜 총 27개의 논설과 논문을 9개의 주제로 다룬 Behaviorial Decision Theory 와 Marketing 분야의 적용을 연구하는 소비자 의사결정 Seminar 과목을 공부하였습니다.
옛날 대학원과정(1966~1968)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행동경제학 의사결정과 마케팅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노벨상 수상자 포함)의 사상 및 학문이론과 실제 상항들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최대 행운의 기회였습니다. 새삼스럽게 세계적 조류 속에서 벌어지는 학문과 선진 문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학문연구의 풍요함과 뿌듯함 속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님들의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열정이 너무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실상 그대로이니 한국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감동적이었고 마음속으로 한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Q. 바쁜 일정 중에서도 논문을 완료하셨습니다. 졸업하는 과정에서 힘드셨거나, 논문쓰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인으로서 평생을 보내면서, ISBC 세계중소기업가 협의회 회의로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인과도 현지국가에서 학술적 교류도 했고 가끔 세론, 기업 평론,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상생문제등을 써 내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달 채 안되서 자신 있게 제출했는데, 뜻밖에도 1차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표절은 물론이고, 자기표절도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제가 집필해서 책으로 발간 했던 것 일부를 옮겨 쓴 것이 문제가 되었고, 참고문헌 소개와 인용 방법 등등 가차없는 편달을 호되게 받았지요. 지도교수님도 심사위원 교수님들도 모두 한치도 봐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연실색(啞然失色)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한쪽귀가 불청이고, 밤새 외우면 다음날 아침 모두 잊어비리고 마는 심한 기억력 감퇴 등의 핸디캡(Handicap)을 무릅쓰고 학원에 다니면서 6개월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죽어라고 공부했던 탭스 교육의 고난의 과정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컸었지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완전히 새롭게 구상하여, 폭넓은 통계와 자료를 한국과 일본에서 구해서 다시 써나갔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러다가 쓰러지겠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3개월이 지나 그래도 거의 완성할 때쯤에는 내 힘으로 새롭게 창작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그후 최종 논문심사에서는 지도 교수님께서도 그리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과연 서울대학교의 논문심사 과정은 듣던 대로 엄격하였습니다.

Q. 한국특수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시고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경영관을 여쭙고 싶습니다.

1968년 2월 "나도 할수 있다는 분연한 결의에 찬 의욕"만으로 국가기간 산업의 연관효과가 큰 석유화학 계열의 중소 제조업 업종을 선정하고 혼자 창업 하였습니다.
"끝을 보고 시작하고, 시작했으면 목숨을 걸고 끝을 맺어라". 얼마 안되는 퇴직금만으로 자신감만 믿고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키웠나갔지요. 돈키호테 같았습니다. 미친듯 칼을 빼들고 풍차에 돌진 하는 것처럼 말이죠.
"All risk taker!" 기업가의 별명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과 조직 기관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신세만 지면서 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Q. 선배 경영인으로써 미래 CEO를 꿈꾸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비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영대학 학생들은 선진국 문명과 세계인으로서의 폭넓은 안목을 키워나가는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들입니다.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고통을 이겨내고, 불공정을 없애고, all risk taking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25시가 되고 존경 받는 리더, 행복하고 능력 있는 CEO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Q. 아드님도 우리대학 동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 이신지요?

큰아들 이익찬 경영대 86학번으로 30년 후배이며 공직에 근무 하고 있고, 둘째는 코넬대와 와튼스쿨 출신으로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 팎에서 각각 꿈을 키우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민족도 국민도 사람 개인의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애국심을 심저에 심고, 불굴의 의지와 올바른 경영철학을 확립하고, 나라와 국민과 세계에 이로운 역할을 하고 이웃과 더불어 기업을 키우는 사람으로 컸으면」하는 바램입니다.

Q. 지난 3월 경영대학에 석사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가족 동문께서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학교 세미나실의 명패를 "오리 이원익 토론실"로 헌정하여 주심으로써, 한국 역사에서 위대한 역사 인물을 기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오리 이원익 선생은 조선 최고의 청백리로 평가받고 있는 정승입니다. 장차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CEO가 될 것을 고민하는 경영대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적절한가?

고봉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에 KOSPI200 지수선물시장의 개설을 시작으로 1997년 지수옵션시장이 순차적으로 개설되면서 개설 초기의 성공적인 도입과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거래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다. 그 결과,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11년 기준 세계 1위의 주가지수 옵션시장과 세계 5위의 주가지수 선물시장으로 우뚝 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상품시장의 비과세 정책은 오래 전부터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어 오던 주식 현물시장에 비하여 과세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결국 작년 말 2014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파생상품 과세 논쟁의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내년부터 시행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은 KOSPI200 선물과 옵션,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내 파생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은 탄력세율로 10%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결국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헤징하는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이 무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파생상품의 헤징거래 수요를 위축시켜 현물 주식시장과 여타 자본시장의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즉 헤징거래자는 파생거래에서 이익을 보면 현물거래에서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현물 쪽의 손실이 파생 쪽의 이익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면 헤징거래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선물간 세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선물간 양도차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주식 현물은 제외하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확대 차원에서도 실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균형적인 세제로 인해 파생상품의 헤징거래 수요가 위축되면 주식 현물거래가 감소하여 증권거래세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증가되는 세수는 연간 400억원 정도이지만, 이는 주식 현물거래 감소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로 상쇄될 것으로 선행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를 규정하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투기억제라는 취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국내 파생상품 거래대금 규모를 실물경제 규모인 GDP와 비교해보면 약 7.2배 수준으로서, 미국의 81배, 영국의 97배, 독일의 40배, 홍콩의 16배 등 선진금융시장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결코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라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이들 상품으로 과열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흔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복잡한 파생상품의 남발을 통해 지나친 투기와 과욕을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파생상품의 헤징이라는 순기능은 무시한 채 겉으로 나타난 역기능만을 보고 하는 주장이다. 파생상품은 헤징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도하게 사용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즉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이다. 파생상품의 남용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을 미리 감독하고 통제할 감독체제가 뒷바침 되어야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에 복잡한 장외 파생상품들의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모르는 감독부재의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의 납세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로 국한함에 따라, 법인세 부과 대상인 기관투자자와 이중과세 방지조약의 규정을 받는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게 되어 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정작 이익을 보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제외되고,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투자자들만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으로 국한하는 것은 투자자간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KOSPI200 선물·옵션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고, ELS 등 주가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간접 투자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품간 조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내년부터 시행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도 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사례들이 있으니 이들을 참고하여 신중한 준비와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안이 제기된 이후 약 14년간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졌으며, 동 기간 중 증권거래세는 1989년부터 세율을 점차로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1999년에 폐지함으로써 양도차익 과세로의 일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대만의 경우에는 1989년에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안을 정부가 발표한 이후 1년간 가권 지수가 거의 40% 가까운 하락을 보일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커져서 다시 과세를 보류키로 한 바 있다. 이처럼 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 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상품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치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 인사관리에 대한 오해

박희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3년 4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60세 정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60세 정년 의무화는 단순히 정년이 몇 년 연장된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은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인사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아래에서는 전통적 인사관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관리는 연공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많은 학자들은 전통적인 인사관리의 중요한 특징으로 연공서열을 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나 직급이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나 직급이 올라간다는 것이 반드시 임금관리와 승진관리가 연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먼저 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연공급은 서양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직무급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직무급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와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라면 연공급은 근속년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연공급은 '직무와 관계없이' 근속년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승이 단순한 근속년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는 직무로의 승진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연공에 의한 것이라고만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에서는 직급과 직책이 일치 하였다. 즉 전통적인 조직은 계-과-부 등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계구조에 대응하여 직급도 사원-계장-과장-차장/부장-임원의 위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에서는 임금인상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상위직책으로의 승진이며, 한 직책 내에서 연공에 의한 임금상승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임금제도는 연공급적 요소와 더불어 직무급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사관리시스템에서 연공과 더불어 상위직책으로의 승진이 중요한 임금결정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승진이 연공에 의해 결정된다면 임금은 여전히 연공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인사관리시스템에서 승진은 연공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우리나라의 높은 집단주의와 서열의식으로 인해 입사연도가 비슷한 직원들은 제한된 수의 상위직책으로 승진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하게 되며,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은 핵심부에서 밀려나 주변부로 전출되게 된다. 만일 여러 번 승진경쟁에서 탈락하여 자신의 후배나 부하였던 직원을 상사로 모시게 된 직원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승진을 위한 경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적재적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연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의 경우 연공에 의한 임금(호봉)상승이 존재했으며, 승진의 경우에도 능력이나 성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오래 근무한 근로자를 먼저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요한 점은 전통적인 인사관리에서도 직무와 능력 및 성과의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연공급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연공급적 임금체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연공급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공급제로 인해 기업의 평균 임금이 높아진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연공급제 하에서는 근속년수가 높은 직원들이 자기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연공급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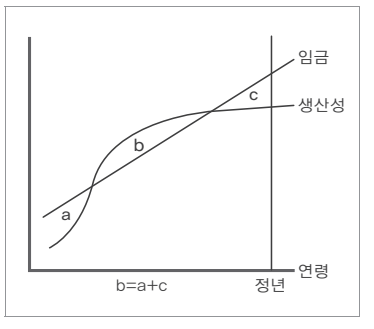
먼저 연공급제로 인해 기업의 평균 임금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임금관리는 크게 한 기업의 평균 임금을 경쟁회사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임금수준관리, 기본급을 어떤 기준(예. 연공, 직무)에 의해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임금구조관리, 그리고 성과급, 복지후생 등의 요소들을 어떤 비중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임금구성관리로 구분되어진다. 즉 기본급을 연공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이냐 아니면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할 것이냐 라는 임금구조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평균임금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이냐 라는 임금수준에 대한 결정과 별개의 것이다. 즉 기업은 기본급이 연공급제이든 직무급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경쟁전략에 맞추어 경쟁기업보다 높거나(시장선도전략), 낮거나(시장추종전략), 또는 동일한(시장임률전략)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기업의 평균임금이 그 기업의 의도와는 달리 경쟁기업보다 높은 것은 임금수준관리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연공급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공급제 하에서 근속년수가 높은 직원들이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어떨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공급제 하에서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연공급제 하에서의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근로 생애주기 동안 S자 형태의 학습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초기에는 생산성의 절대적인 수준과 그 증가속도가 낮으나,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생산성이 급속히 증가한다. 하지만 그 이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연공급제에서의 임금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연공급제 하에서는 생산성과 임금이 항상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근로생애주기 초기에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고 중기에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낮은 반면, 후기에는 다시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업이 존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생애주기 전체를 통하여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도록(b=a+c) 정년을 설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연공급제에서는 개개의 시점에서는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체 기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업에 기여하는 정도(생산성)과 그에 대한 보상(임금)이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공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한다면 근속년수가 긴 직원들이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고 있는 높은 임금은 젊은 시절 이들이 회사에 기여한 것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연공급제에서 생산성과 임금과의 관계



3. 연공급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약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다.

연공급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연공급제 하에서의 임금은 성과와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급 설계의 기준을 연공으로 할 것이냐, 직무로 할 것이냐 라는 임금구조에 대한 결정은 성과급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라는 임금구성에 대한 결정과 관련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성과급제인 연봉제의 대부분이 호봉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공급제이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Lezear에 의하면 임금의 상당부분을 근로 생애 주기의 후반으로 이월한 연공급제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 생애주기 중반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후반부로 이월한 임금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성실히 일할 동기가 생기며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인사관리 시스템에서는 임금보다 승진이 주된 동기부여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승진은 임금상승 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력의 상승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몇 번 승진에서 탈락한 직원은 이직을 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금인상 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 기능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성과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에 비하여 승진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의 행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노사관계연구 제 25권(2014)에 실린 '정년 60세 시대를 위한 인사관리전략 및 정부지원방안'에서 발췌한 것임.

명화가 광고에 등장한 까닭은?

김상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광고와 예술의 만남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몽마르트의 화가 툴루즈 로트렉이 물랑루즈의 광고 포스터를 그린 것이 19세기 말이니까 120년도 넘었다. 1981년부터 시작된 압솔루트(Absolut) 보드카의 아트 광고도 앤디 워홀, 루이스 부르조아, 키쓰 해링 같은 유명 화가들이 참여한 덕에 예술작품(artwork)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요즘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을 차용한 광고가 훨씬 많아졌다.

필자가 기억하는 국내광고의 명화차용 첫 사례는 럭키 유니나 청포샴푸 광고다(1977년). "천년을 간직해온 자연의 향기"라는 광고 문구가 씌어 있었고, 단옷날 그네를 타고 냇물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여인들을 그린 신윤복의 〈단오풍정〉 옆에 초록색 패키지의 청포샴푸가 놓여있었다. LG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2008년부터 앙리 마티스, 반 고흐, 폴 고갱 등의 명화를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마티스 편 '사랑해요 LG' 광고는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받았고, 고흐 편은 아시아태평양광고제의 은상을 받았다(그림1). 최근에는 구스타브 클림트의 작품을 활용한 3D TV 광고, 에드가 드가의 작품을 차용한 LG 유플러스 광고 등을 제작하여 꾸준히 아트 광고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광고에 예술작품을 차용하는 이유는 뭘까?

LG가 명화차용 광고를 제작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압솔루트 보드카가 노렸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의 획득이 목적인 것이다. 다이아몬드 전문기업인 드비어스도 같은 이유로 오래전부터 명화광고를 했고, 스페인의 엘 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도 벨라스케스의 〈시녀들(Las Meninas)〉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차용하여 "패션이 예술이 되는 곳"이란 광고를 하고 있다. 명화는 작가의 명성, 작품의 희소성(그에 따른 높은 가격), 그리고 구매자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대변하는 '프레스티지' 이미지로 인해 명화차용 광고에 소개되는 제품의 품격을 자연스레 높여준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브랜딩이 명화 차용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명화를 변형하거나 패러디를 만들어 광고에 차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작품의 맥락(context)을 제품의 사용상황과 연결시키거나 반전의 유머코드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과거 노키아는 'Connecting People'이란 광고를 하면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 〈아담의 창조〉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태초의 교감을 현대인의 소통에 끌어댄 것이다.

최근 국내의 한 보험사는 젊은 한국화 작가인 김현정의 작품으로 지하철 광고를 만들었다. 이 광고에는 작가의 대표작인 〈내숭스물일곱, 세월의 무게〉라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배 위에는 잡지를 펴놓고 벤치에 누워 역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그림2). 이 그림이 대체 보험이랑 무슨 상관인가, 하며 꼼꼼히 광고를 살피던 필자가 발견한 것은 바로 "들어볼까?"라는 문구였다. 역기를 드는 것과 보험을 드는 것의 공통점에 착안한 광고인 것이다.

광고에 가장 많이 패러디된 예술 작품은 아마 〈모나리자〉일 것이다. 오묘한 미소의 모나리자에게 콜게이트 치약은 "가식적인 미소를 버리고 활짝 웃어보라(Smile Big)"고 말한다(그림3). 이를 드러내고 웃지 못하는 모나리자의 숨은 고민을 콜게이트 치약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이 빵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모나리자의 헤어스타일을 아주 청순하게 만들어 준 비달 싸순 헤어 드라이기, 그림 속 모나리자의 머리까지 날리게 만드는 밀레 청소기, 컴퓨터 설치가 너무 쉬워서 모나리자 미소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게이트웨이 컴퓨터 광고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걸고 넘어지는 광고는 끝도 없이 많다. 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 〈최후의 만찬〉도 자주 차용되는 소재인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의 연출, 기발한 메시지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명화 광고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소프트셀 어프로치(soft sell approach)'다. 굳이 번역하자면 '부드럽게 다가가는 판매전략'이라고 할까? 가격할인, 보너스, 스페셜 판촉과 같은 '하드셀 어프로치(hard sell approach)'에 비해 소프트셀 어프로치는 고객의 자존감과 본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은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명화를 차용한 광고에서는 하드셀 어프로치를 사용한 경우가 5퍼센트 미만이었다고 한다. 우아한 예술 작품을 옆에 모셔놓고 '가격 파괴' '반액 할인' '창고 대방출' 같은 말을 쓰기가 매우 뻘쭘하기 때문이란다. 게다가 광고에 사용된 미술작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충분히 높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각하게 되어 쿠폰이나 세일에 덜 민감해지기까지 한다. 예술 작품이 부리는 마법이다.

이른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온갖 광고를 피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잠시 명화를 감상하며 작가의 (혹은 광고주의) 숨은 뜻을 찾아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면, 지하철 문 옆에 붙은 광고도 충분히 눈길을 줄만하다. 광고가 명화를 품으면 최대한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고객의 마음을 부드럽게 끌어당길 수 있다.

〈그림1〉 '사랑해요 LG' 마티스편
LG전자는 명화 광고를 통해 "생활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그림 2〉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광고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김현정 작가의 〈내숭〉 시리즈 작품을 구매의 맥락과 연결하여 반전의 유머코드를 광고에 활용했다.

〈그림3〉 콜게이트 치약의 모나리자 패러디 광고
콜게이트 치약은 'Smile Big' 광고에 모나리자를 차용하여 주목도를 높이고 치아미백 기능을 효과적으로 알렸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발전의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NU BUSINESS SCHOOL

학부동문

강남석 ('96)
강동석 ('85)
강동수 ('97)
강성원 ('66)
강승만 ('05)
강연재 ('75)
강옥구 ('98)
강윤석 ('88)
강인수 ('87)
강정영 ('98)
강정훈 ('98)
강중구 ('82)
강창호 ('85)
강희천 ('88)
고대원 ('84)
고석준 ('93)
고성재 ('96)
고성천 ('79)
고승현 ('85)
고재희 ('93)
고현실 ('98)
고희강 ('98)
곽기용 ('90)
곽병진 ('84)
곽윤구 ('92)
구경철 ('81)
구본준 ('97)
구양훈 ('92)
국기호 ('79)
권민정 ('00)
권성환 ('99)
권순만 ('83)
권영수 ('75)
권주팔 ('86)
권혁재 ('79)
김갑순 ('88)
김건우 ('93)
김경배 ('82)
김경철 ('90)
김 광 ('83)
김광민 ('99)
김광섭 ('95)
김광성 ('73)
김광일 ('83)
김광일 ('84)
김광점 ('83)
김광호 ('85)
김규완 ('06)
김근중 ('87)
김기동 ('83)
김기록 ('00)
김기태 ('84)
김나연 ('01)
김남곤 ('89)
김남훈 ('96)
김대열 ('95)
김대욱 ('84)
김도연 ('98)
김동성 ('92)
김동필 ('85)
김동회 ('88)
김두만 ('59)
김란옥 ('99)
김만춘 ('96)
김명관 ('82)
김문현 ('87)
김범수 ('86)
김범준 ('92)
김병옥 ('83)
김복균 ('98)
김봉경 ('92)
김상노 ('93)
김상민 ('94)
김상형 ('99)
김상훈 ('95)
김선엽 ('88)
김성권 ('99)
김성균 ('89)
김성기 ('90)
김성남 ('83)
김성열 ('57)
김성천 ('84)
김성철 ('83)
김수철 ('95)
김수환 ('82)
김 신 ('75)
김영중 ('77)
김영대 ('90)
김영민 ('98)
김영봉 ('84)
김영삼 ('87)
김영일 ('82)
김영필 ('00)
김완석 ('97)
김완희 ('83)
김용범 ('93)
김용완 ('87)
김용운 ('83)
김용원 ('81)
김용철 ('83)
김우택 ('83)
김유주 ('87)
김윤경 ('99)
김윤수 ('84)
김은정 ('97)
김의성 ('84)
김이환 ('93)
김익철 ('91)
김인수 ('83)
김일섭 ('64)
김자영 ('00)
김재일 ('81)
김재종 ('00)
김재헌 ('82)
김재환 ('92)
김정명 ('98)
김정은 ('99)
김종규 ('83)
김종성 ('64)
김종우 ('83)
김종한 ('92)
김종흔 ('92)
김준원 ('95)
김준철 ('83)
김준형 ('93)
김준호 ('81)
김지연 ('01)
김지정 ('99)
김진태 ('88)
김진현 ('84)
김창래 ('88)
김창원 ('97)
김철원 ('93)
김춘훤 (86)
김치근 ('83)
김태곤 ('82)
김태오 ('70)
김해권 ('97)
김 혁 ('87)
김현두 ('94)
김형태 ('95)
김홍섭 ('79)
김회석 ('95)
김후성 ('99)
김희재 ('98)
김흥국 ('72)
나성민 ('97)
나성찬 ('86)
나형균 ('86)
남기천 ('82)
남수현 ('87)
남연우 ('83)
남영호 ('75)
남우석 ('97)
남 욱 ('82)
남중수 ('75)
노기팔 ('86)
노상규 ('83)
노석균 ('83)
노원종 ('96)
노종현 ('98)
류경표 ('83)
류승동 ('82)
류 인 ('79)
류재욱 ('87)
류종윤 ('82)
류헌석 ('98)
모과균 ('84)
모성원 ('97)
문대원 ('71)
문보성 ('95)
민경인 ('96)
민대환 ('75)
민보현 ('97)
민승기 ('74)
민재윤 ('98)
민형동 ('71)
박경진 ('03)
박광채 ('83)
박기태 ('85)
박기형 ('83)
박래수 ('84)
박부영 ('96)
박상규 ('83)
박성우 ('83)
박수민 ('96)
박영관 ('04)
박용이 ('57)
박용진 ('85)
박용환 ('72)
박인근 ('91)
박재혁 ('86)
박정래 ('72)
박정선 ('89)
박종선 ('99)
박종식 ('96)
박종우 ('94)
박종원 ('83)
박주현 ('98)
박준영 ('91)
박중현 ('94)
박지은 ('98)
박지현 ('88)
박지혜 ('01)
박진영 ('82)
박찬용 ('86)
박찬호 ('83)
박창길 ('66)
박철기 ('97)
박철수 ('83)
박철용 ('78)
박태규 ('92)
박태성 ('87)
박학규 ('82)
박해용 ('96)
박현정 ('97)
박형근 ('98)
박형봉 ('86)
박희석 ('84)
배성환 ('99)
배수일 ('83)
배영효 ('78)
배윤정 ('03)
배화주 ('83)
백동관 ('78)
백우현 ('74)
백창기 ('76)
서대윤 ('62)
서동규 ('84)
서문기 ('84)
서승욱 ('96)
서영석 ('98)
서원일 ('96)
서정수 ('87)
서종현 ('95)
서진식 ('88)
서희원 ('98)
석 훈 ('01)
선병오 ('95)
선우희연('99)
성상현 ('84)
성태호 ('95)
성태홍 ('83)
손병옥 ('98)
손영백 ('94)
손영진 ('81)
손영진 ('82)
손은석 ('91)
손종현 ('94)
손준원 ('94)
손창욱 ('09)
손현석 ('92)
송기호 ('90)
송 용 ('87)
송인준 ('85)
송재익 ('94)
송종호 ('84)
송하동 ('83)
신기천 ('81)
신상철 ('86)
신영욱 ('82)
신용삼 ('73)
신용항 ('96)
신진영 ('01)
신현철 ('97)
신희균 ('89)
심성보 ('82)
심수아 ('88)
심정헌 ('96)
심현석 ('96)
심호식 ('97)
안경태 ('71)
안계환 ('82)
안민희 ('94)
안성칠 ('83)
안영균 ('78)
안종범 ('83)
안홍환 ('70)
양선엽 ('77)
양성현 ('94)
양승우 ('68)
양시형 ('92)
양안수 ('97)
양일근 ('85)
양희동 ('84)
어경석 ('91)
엄정근 ('84)
오기원 ('83)
오동렬 ('99)
오상록 ('09)
오선영 ('83)
오성호 ('92)
오승혁 ('93)
오엽록 ('81)
오윤택 ('75)
오재권 ('75)
오정구 ('94)
오정림 ('97)
오창석 ('82)
옥성환 ('92)
옹성종 ('95)
우두헌 ('61)
우승백 ('95)
우영기 ('97)
원재연 ('82)
원효성 ('79)
유경석 ('96)
유경연 ('95)
유기석 ('85)
유병준 ('90)
유상문 ('99)
유석렬 ('70)
유영민 ('01)
유정민 ('96)
유정호 ('98)
유진무 ('62)
유희찬 ('80)
윤성복 ('69)
윤여진 ('97)
윤영구 ('97)
윤영기 ('83)
윤장희 ('83)
윤재봉 ('73)
윤제철 ('66)
윤종현 ('82)
윤지현 ('91)
윤현철 ('78)
윤훈수 ('83)
이강민 ('95)
이건우 ('95)
이경준 ('97)
이경희 ('84)
이광우 ('84)
이국진 ('77)
이규환 ('81)
이기국 ('90)
이기복 ('93)
이기봉 ('83)
이남주 ('95)
이대건 ('03)
이대성 ('83)
이덕준 ('83)
이덕훈 ('89)
이동건 ('82)
이동훈 ('87)
이동훈 ('95)
이만열 ('82)
이명규 ('83)
이명철 ('71)
이문희 ('82)
이민석 ('82)
이봉주 ('98)
이상목 ('06)
이상민 ('90)
이상종 ('95)
이석규 ('83)
이석훈 ('99)
이선민 ('97)
이세용 ('83)
이승렬 ('02)
이승은 ('03)
이승철 ('93)
이승호 ('82)
이승호 ('88)
이승호 ('92)
이승훈 ('04)
이영상 ('59)
이영서 ('61)
이영웅 ('78)
이영재 ('97)
이영진 ('84)
이왕상 ('92)
이용갑 ('83)
이용국 ('84)
이용규('84)
이용범 ('97)
이용우 ('95)
이우종 ('97)
이 원 ('83)
이원하 ('96)
이유진 ('88)
이 윤 ('87)
이응상 ('83)
이재국 ('59)
이재영 ('74)
이재원 ('01)
이재원 ('55)
이재일 ('73)
이재호 ('84)
이재호 ('99)
이재훈 ('98)
이정규 ('99)
이정원 ('84)
이정인 ('83)
이정훈 ('88)
이정희 ('79)
이종철 ('78)
이주세 ('83)
이주영 ('00)
이준근 ('86)
이준기 ('00)
이준엽 ('00)
이준우 ('96)
이준원 ('92)
이준호 ('97)
이지신 ('84)
이지원 ('99)
이진방 ('67)
이진욱 ('92)
이창우 ('74)
이창환 ('74)
이창훈 ('81)
이철영 ('63)
이철주 ('59)
이춘호 ('83)
이태영 ('78)
이태호 ('92)
이한목 ('80)
이혁수 ('83)
이현승 ('84)
이현우 ('92)
이현철 ('83)
이형오 ('82)
이호석 ('02)
이홍근 ('70)
이환인 ('83)
임 일 ('84)
임지산 ('93)
임진환 ('83)
임형주 ('92)
임환범 ('02)
장경준 ('74)
장무호 ('98)
장보훈 ('83)
장사범 ('84)
장석우 ('99)
장선택 ('86)
장영철 ('76)
장영호 ('93)
장인근 ('84)
장종현 ('78)
장진국 ('00)
전 괄 ('76)
전규안 ('85)
전기환 ('83)
전성용 ('85)
전용배 ('82)
전익수 ('83)
전 홍 ('83)
정기영 ('67)
정건해 ('65)
정경수 ('91)
정국원 ('99)
정기철 ('97)
정명훈 ('93)
정민수 ('93)
정병규 ('83)
정병환 ('95)
정성학 ('92)
정수현 ('98)
정승원 ('97)
정승환 ('83)
정영채 ('82)
정옥희 ('82)
정용재 ('83)
정우창 ('85)
정욱재 ('91)
정원용 ('83)
정은혜 ('00)
정일용 ('95)
정정한 ('94)
정찬수 ('82)
정창모 ('81)
정태천 ('86)
정하용 ('65)
정 한 ('97)
정한성 ('70)
정회동 ('76)
제갈정웅('65)
제원용 ('98)
조경목 ('82)
조길현 ('91)
조명현 ('83)
조민식 ('86)
조민제 ('86)
조성권 ('00)
조성호 ('84)
조연주 ('87)
조영기 ('02)
조영은 ('01)
조영창 ('97)
조용균 ('98)
조용해 ('69)
조원웅 ('97)
조원홍 ('83)
조윤제 ('98)
조인하 ('83)
조재민 ('74)
조정훈 ('97)
조진제 ('05)
조태현 ('75)
조현석 ('98)
조현탁 ('83)
조형태 ('97)
주대현 ('91)
주성도 ('75)
주용훈 ('97)
주정일 ('84)
지성배 ('86)
지창수 ('55)
진승환 ('90)
차경민 ('91)
차세영 ('95)
차재연 ('84)
천상훈 ('89)
최광해 ('82)
최기엽 ('82)
최동수 ('65)
최동진 ('99)
최병노 ('83)
최병희 ('95)
최선화 ('97)
최성범 ('78)
최승환 ('82)
최승훈 ('89)
최연식 ('97)
최욱경 ('84)
최원석 ('88)
최유화 ('83)
최은옥 ('86)
최정욱 ('84)
최종호 ('82)
최주호 ('84)
최준혁 ('91)
최지희 ('97)
최진아 ('85)
최진혁 ('96)
최창묵 ('82)
최창윤 ('96)
최현정 ('88)
최혜진 ('99)
하석원 ('96)
하승호 ('04)
하용이 ('73)
하장협 ('98)
하정주 ('84)
하태형 ('78)
한갑희 ('78)
한규영 ('95)
한상무 ('89)
한상철 ('86)
한승수 ('82)
한정록 ('76)
한정탁 ('98)
한종철 ('79)
한준석 ('76)
한학주 ('97)
한형진 ('97)
한홍석 ('86)
함기창 ('57)
허병하 ('58)
허석영 ('83)
허은영 ('99)
허 종 ('69)
현광진 ('83)
홍기수 ('89)
홍명주 ('98)
홍순호 ('62)
홍승환 ('95)
홍용천 ('87)
홍우선 ('80)
홍정범 ('82)
홍주완 ('84)
홍준기 ('91)
황건호 ('70)
황성엽 ('82)
황성택 ('86)
황수연 ('72)
황영선 ('82)
황윤재 ('98)
황인찬 ('92)
황학연 ('89)
황호준 ('98)

대학원/MBA동문

강경호 ('99)
강주래 ('98)
권혁진 ('89)
김광윤 ('73)
김대근 ('02)
김봉경 ('92)
김미 ('00)
김성현 ('99)
김영대 ('70)
김재윤 ('92)
나경원 ('99)
류환열 ('86)
명장호 ('99)
박동규 ('99)
박민수 ('01)
박진하 ('04)
박형순 ('00)
송혁준 ('90)
신현주 ('05)
안병주 ('07)
유성태 ('99)
이경중 ('01)
이권훈 ('84)
이기학 ('87)
이윤재 ('06)
이정묵 ('93)
이정훈 ('05)
이진영 ('82)
이홍근 ('76)
정문기 ('81)
정홍일 ('05)
조경훈 ('92)
조성룡 ('95)
조성연 ('97)
천은영 (박사 '07)
최원호 ('98)
한정섭 ('95)
홍진오 ('00)
황필주 ('83)
계명하 (SNUMBA'09)
김도영 (GMBA '06)
남상욱 (SNUMBA'08)
남혜진 (SNUMBA'09)
배기표 (SNUMBA'09)
손헌배 (SNUMBA'09)
위견 (SNUMBA'08)
이진 (SNUMBA'10)
장승희 (EMBA'09)

경영자과정동문

이광열 (AAP 1기)
김선애 (ABP 26기)
강재철 (AMP 67기)
고제방 (AMP 65기)
구종태 (AMP 45기)
권기술 (AMP 09기)
권오영 (AMP 64기)
금창대 (AMP 38기)
김교준 (AMP 67기)
김인규 (AMP 06기)
김종광 (AMP 45기)
김종엽 (AMP 28기)
김주한 (AMP 50기)
남정현 (AMP 20기)
노기호 (AMP 50기)
류덕희 (AMP 29기)
박병렬 (AMP 67기)
박성희 (AMP 54기)
박세훈 (AMP 67기)
박영관 (AMP 29기)
박유덕 (AMP 67기)
박윤택 (AMP 64기)
박정석 (AMP 68기)
박준형 (AMP 02기)
박현섭 (AMP 66기)
성시철 (AMP 67기)
손경식 (AMP 23기)
송언기 (AMP 28기)
송진수 (AMP 67기)
송진철 (AMP 52기)
신성우 (AMP 32기)
신언수 (AMP 67기)
안병제 (AMP 59기)
안응수 (AMP 45기)
안창엽 (AMP 68기)
유근영 (AMP 64기)
유성규 (AMP 44기)
유원찬 (AMP 67기)
유창열 (AMP 67기)
육근열 (AMP 64기)
윤영호 (AMP 11기)
은민수 (AMP 67기)
이기천 (AMP 71기)
이병재 (AMP 19기)
이봉훈 (AMP 40기)
이봉훈 (AMP 40기)
이세엽 (AMP 52기)
이원영 (AMP 06기)
이장원 (AMP 64기)
이재우 (AMP 67기)
이정빈 (AMP 68기)
이종태 (AMP 50기)
이찬복 (AMP 67기)
장신규 (AMP 64기)
정석현 (AMP 44기)
정재호 (AMP 65기)
조석제 (AMP 62기)
조성환 (AMP 48기)
조승현 (AMP 66기)
조희정 (AMP 67기)
차문현 (AMP 67기)
최진식 (AMP 53기)
최효석 (AMP 67기)
한규범 (AMP 42기)
황복현 (AMP 45기)
강근호 (CFO 04기)
강장학 (CFO 12기)
김중엽 (CFO 06기)
류철한 (CFO 12기)
박경진 (CFO 12기)
박성훈 (CFO 01기)
사재훈 (CFO 07기)
송현종 (CFO 02기)
신동호 (CFO 02기)
심재복 (CFO 12기)
안철홍 (CFO 06기)
옥경석 (CFO 04기)
이동신 (CFO 10기)
이상래 (CFO 07기)
이수연 (CFO 08기)
이찬국 (CFO 02기)
임경섭 (CFO 03기)
장혁주 (CFO 12기)
정종민 (CFO 04기)
정철모 (CFO 03기)
조효승 (CFO 11기)
최명자 (CFO 12기)
최태은 (CFO 09기)
홍지숙 (CFO 12기)
김종성 (DMP 02기)
이필문 (GIB 03기)
고성수 (NSAMP 01기)
고기한 (SCP 02기)
김광덕 (SCP 02기)
성광웅 (SCP 02기)
신재열 (SCP 02기)
심경만 (SCP 02기)
최성락 (SCP 02기)

기업. 단체

경영대학직원 일동
단암장학재단
덕송회
동문경영포럼2기
상대동창회
서울대학교경영대학원동창회
서울상대동문능상회
서울상대향상장학회
AAP 1기일동
AAP 2기일동
AAP 3기일동
AAP 4기일동
AAP 5기일동
AAP 6기일동
AAP 7기일동
AAP 8기일동
AAP 9기일동
AAP 10기일동
AAP 11기일동
AAP 12기일동
AAP 13기일동
AMP 28기일동
AMP 61기일동
AMP 62기일동
AMP 63기일동
AMP 64기일동
AMP 65기일동
AMP 66기일동
AMP 67기일동
AMP 68기일동
AMP 69기일동
AMP 70기일동
AMP 71기일동
AMP 72기일동
AMP 73기일동
AMP 74기일동
AMP 75기일동
AMP 76기일동
AMP 77기일동
AMP 78기일동
AMP 라이온스클럽
AMP 로타리클럽
AMP 총동창회
CFO 1기일동
CFO 2기일동
CFO 3기일동
CFO 4기일동
CFO 5기일동
CFO 6기일동
CFO 7기일동
CFO 8기일동
CFO 9기일동
CFO 10기일동
CFO 11기일동
CFO 12기일동
CFO 13기일동
CFO 14기일동
CFO 15기일동
CFO 16기일동
CFO 17기일동
CFO 18기일동
CFO 19기일동
CFO 20기일동
CHRO 1기 일동
CHRO 2기 일동
EMBA 1기
EMBA 2기
EMBA 3기
EMBA 4기
EMBA 5기
GMBA Finance Forum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제8기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제9기
자연친화경영과정 제1기
직원경영능력향상과정1기교육생일동
직원경영능력향상과정2기교육생일동
89A 타조알상조회
㈜골드윈코리아
㈜네모커머스
농협
㈜다이소아성산업
대성한국캠브리지필터㈜
대우증권
대전고교
㈜대한항공
동부문화재단
㈜동양강철
디엔씨엔지니어링㈜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롯데쇼핑㈜
㈜리브로
미셸
유한회사 본음인베스트먼트
비티앤아이여행사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투자신탁운용㈜
㈜삼익악기
삼일회계법인
삼정케이피엠지㈜
생명보험협회
신라교역㈜
㈜아모레퍼시픽
동부문화재단
아이씨티 소프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아주베스틸㈜
안진회계법인
양제상사
양제아이엔씨㈜
언스트앤영어드바이저㈜
㈜에스디케이
H&S Corporation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엑스빼제㈜
LG디스플레이㈜
㈜LG CNS
엘티에스코리아㈜
오성엘에스티㈜
㈜와이비엠시사
우리투자증권
우림건설
㈜유한양행
증권금융연구소
㈜KT
코오롱인더스트리㈜
트러스톤자산운용㈜
트리코인베스트먼트㈜
PSK㈜
㈜하나은행
하남산업㈜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웰
㈜한일맨파워
한화석유화학㈜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현대증권

학부모

고상희
권숙형
권태석
강용학
김경숙
김승업
김영윤
김지형
민홍기
박영범
박정열
신희택
유병록
유준영
이강숙
이도흠
이동하
이성로
조현재
차동언
최윤규
최진호

경영대학 교수 및 교직원

강성춘
고봉찬
곽성현
곽수근
김병도
김상훈
김성수
김수욱
김영희
김익현
김재일
김진교
남익현
노상규
박남규
박원우
박희준
백복현
송재용
신재용
안중호
안태식
유병준
유희봉
윤계섭
윤석화
이경묵
이신이
이유재
이창우
임종원
장정주
전진록
정운오
조동성
조성곤
조성욱
조재호
채준
최도성
최미혜
최종학
최진남
최충림
최해영
황이석

그 외

강상호
강성신
강진화
고영준
고재훈
고정목
공세형
곽태희
길호문
김경민
김경준
김경훈
김광수
김광우
김근호
김도윤
김도현
김동찬
김명중
김미진
김민석
김보미
김병수
김상진
김선정
김수진
김아람
김용
김용하
김윤섭
김의형
김인영
김재홍
김정배
김종석
김준모
김준범
김준형
김지용
김진
김진호
김철기
김치열
김혁
김현신
김혜진
김흥식
나정인
남경우
남상헌
남형권
노리브가
노영근
노일석
노장욱
류연택
류우석
문소정
민준기
박상철
박소연
박소영
박우성
박원
박유상
박주흥
박진우
박형민
박희정
배성수
배영석
백성득
변중석
복정수
서미영
서철원
서태식
서형준
성은정
성지숙
손병구
손인석
손화섭
송영록
송재승
송진혁
신경화
신문철
신세욱
신영직
신해성
안윤기
안진오
안태호
양범석
양우정
양현섭
오용진
오해균
옥정오
유옥동
유태준
유형관
유황선
윤용순
윤현묵
이권희
이규호
이기홍
이달근
이대우
이동훈
이상효
이석우
이선규
이승근
이승아
이승열
이시은
이영수
이우용
이유비
이윤기
이의석
이인구
이재덕
이정미
이주수
이준용
이창민
이철
이충민
이한규
이호인
이희진
임도연
임동준
임승철
장동우
장인수
장진호
장철희
장학성
장홍
장호진
전광우
전영완
전우용
전재호
전진우
정금희
정병수
정성욱
정우철
정지은
정혁진
조병진
조재민
주소연
지운용
지상기
차호수
최규환
최영진
최재혁
최준걸
최지원
최진영
최창호
허윤제
현종윤
홍동희
홍윤기
황규태
황민상
황성필
황세미
황영기

* 위 내용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사이에 발전기금을 출연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입니다.